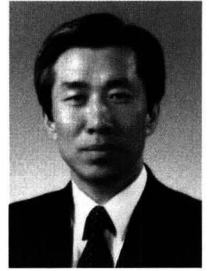


박 . 수 . 와

비 . 판 . 을

기 . 다 . 나 . 보 . 니



〈출판저널〉 독자여러분, 지난 2월 재창간호를 내면서 발행인의 편지를 쓴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는 12월을 맞습니다. 출판계의 정론지를 꺼내겠다는 의지로 한 호 한 호 내다보니 〈출판저널〉 역시 11권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내내 따끔한 비판과 격려 속에서 열정을 쏟아 〈출판저널〉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비판과 격려가 〈출판저널〉의 자양분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까닭에 오늘 송년호를 내면서 필자와 독자, 출판인, 서점인들께 각별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출판계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듯이 출판계 역시 그런 2003년을 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주빈국, 2004년 태국 방콕 도서전의 주빈국으로 확정된 점이 기쁜 일의 하나이고, 북스타트 운동을 비롯 다양한 책 읽기 운동이 펼쳐진 것 역시 기쁜 일로 손꼽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는 가운데 여러 갈래의 걱정거리가 등장하고, 무엇보다 출판불황이 겹친 것은 출판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올해 출판유통진흥원을 설립,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CJ홈쇼핑과 함께 시민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양서를 선정해 선물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출판환경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번역출판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출판문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기억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산업분야에는 빛과 그림자가 병존하기 마련이며, 이런 현실에서 그림자를 빛으로 만드는 것 역시 우리 출판문화인들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판저널〉 역시 그런 지혜의 단서를 제공하는 마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출판저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기간 2003년의 〈출판저널〉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우리 출판문화계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를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출판저널〉을 빛내 주신 독자, 필자, 광고주, 출판문화인 여러분. 〈출판저널〉은 지난 1년 동안 15년 여의 전통을 살리면서 정신의 공간인 책과 각 분야 저자들을 독자와 만나게 하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또한 각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편집형태를 도입, 디지털 시대의 출판문화정론지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여러분의 성원이 2004년을 보다 역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출판저널〉이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보내주시시오. 박수에서는 용기를 얻고, 비판에서는 반성을 체득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출판저널〉로 우뚝 서겠습니다.

2004년, 더욱 새로워진 〈출판저널〉에서 뵙겠습니다.

2003년 12월 일
이 정 일